

## 공적 자기의식,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및 신체상에 대한 태도가 성형 의도에 미치는 영향

손 은 정<sup>†</sup>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Sarwer, Wadden, Pertschuk, 그리고 Whitaker(1998)가 제안한 모델을 기반으로 사회문화적 영향과 관련된 변인인 공적 자기의식,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그리고 신체상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변인인 신체에 대한 감시, 신체에 대한 왜곡이 성형 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여대생 222명을 대상으로 각 변인들에 대한 척도에 응답하게 한 후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7개의 경로 중 공적 자기의식과 신체에 대한 왜곡 간의 경로를 제외한 6개의 경로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네 변인 모두 직접, 간접적으로 성형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신체에 대한 왜곡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성형중독위험 집단, 성형수술집단, 대조 집단으로 나누어 세 집단 간에 네 변인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성형수술 집단과 대조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성형중독위험 집단이 성형수술 집단이나 대조집단보다 공적 자기의식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고, 특히 신체에 대한 왜곡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신체에 대한 왜곡은 성형 행동 및 의도에 상당히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사회문화적 영향과 관련된 변인들과 신체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성형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체계적인 과정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성형 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동일한 특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성형 수술 의도에 따라 성형중독위험 집단과 성형 수술 집단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이 두 집단은 서로 다른 특징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어 : 공적 자기의식,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신체에 대한 감시, 신체에 대한 왜곡, 성형 의도

---

<sup>†</sup> 교신저자 : 손은정,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120-750)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E-mail : ejson@ewha.ac.kr, (02) 3277-4064

현재 우리나라에는 성형수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아시아 9 개국의 10대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외모 개선을 위해 향후 성형수술을 하겠다는 우리나라 소녀들의 비율은 59%로 9개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게 나타났다(동아일보, 2006. 10. 9.). 또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여성들의 89.8%가 성형수술을 고려해 본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27.4%가 이미 성형 수술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연합뉴스, 2006. 11. 15).

이와 같이 성형수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성형수술을 한 비율도 늘어나고 있는 것은 외모가 매력적인 여성은 실생활에서 많은 이득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과제중 여성들의 경우 과제중 남성들에 비해 직업에서의 차별과 적대적인 작업 환경을 훨씬 더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되고 있다(Snow & Harris, 1985). 특히 대중매체는 여성의 신체에 대한 이상화된 이미지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화시키며 여성들은 직업세계 뿐만 아니라 이성 관계에서도 이득을 얻기 위해 이상적인 신체 이미지를 추구하게 된다(Wolf, 1991).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도 성형수술을 하거나 다이어트를 해서 외모가 변화했을 때 타인의 평가와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현옥, 구양숙, 2006). 이와 같이 여성의 신체가 이성 관계나 직업 세계에서 성공의 가능성을 결정한다는 증거들이 있기에, 여성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외모에 신경을 쓰게 된다.

따라서 성형수술은 이제 자신의 외모를 향상시키려는 노력 중 하나로서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성형 수술의 비율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성형

수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성형과 관련된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미디어가 성형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TV, 인터넷, 잡지 중 특히 잡지를 접촉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 증가하고 성형에 대한 동의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종희, 성수광, 진기남, 2006; 최윤정, 2005). 자아존중감이나 신체에 대한 존중감이 성형수술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는 서로 연관이 있다는 결과도 있고(최백화, 2002), 그렇지 않다는 결과도 있어서(차영란, 김기범, 2006)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현옥과 구양숙(2006)의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성형수술을 한 사람들의 동기를 살펴본 결과, 타인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성차별적인 외모 이데올로기 때문에, 외모가 향상될 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리고 자신에게 주는 만족감 때문에 성형수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환과 이상익(2001)은 미용성형 수술을 받은 집단, 재건 성형 수술<sup>1)</sup>을 받은 집단, 그리고 성형수술을 받지 않은 집단의 세 그룹으로 나누어 신체상, 자아주체성과 같은 심리적 특성의 차이에 대하여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재건 수술을 받은 집단이 성형수술을 받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 높았고, 자아주체성 척도에서는 세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성형수술 행동이나 태도와 관련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타인의 평가나 성차별적

1) 출생 시 기형이나 발달 시 기형, 사고, 감염, 종양 등과 같은 이유로 신체적인 이상이 생겼을 때 정상과 가까워지거나 기능의 호전을 위해 실시하는 성형 수술

인 외모 이데올로기가 성형 수술을 하는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는 점이나 잡지와 같은 대중매체와의 접촉이 많을수록 성형 수술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성형 수술에 대한 태도는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문화적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이 연구들에서는 모두 신체에 대한 불만족, 또는 신체에 대한 존중감이라고 표현된 ‘신체상’이라는 변인을 공통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에서 성형 수술에 대한 태도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체상이 성형 수술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심리적 변인임을 알 수 있다. Sarwer, Wadden, Pertschuk, 그리고 Whitaker (1998) 역시 성형 수술과 관련된 이전 연구들을 종합해 본 결과 신체상이 성형 수술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변인이라고 밝혔다.

성형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신체상이 중요한 관련 변인이고 특히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 성형에 대한 태도와 신체상 간의 관계를 사회문화적인 맥락 안에서 보다

구체적인 틀을 바탕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전 연구들에서도 신체상과 성형 수술 간의 관계에 대해 다루었지만, 체계적인 틀 안에서 사회문화적 영향과 신체상이 어떤 과정을 통해 성형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arwer 등(1998)이 제안한 신체상과 성형수술과의 관계에 대한 모델을 바탕으로 성형수술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영향과 관련된 변인들과 신체상이 성형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그림 1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Sarwer 등(1998)은 신체상은 실제로 신체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가가 자신의 외모에 대한 지각, 성장 과정에서의 발달적 영향, 사회문화적 영향,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실제 신체 모양이 매력적일 경우에는 자신의 외모에 대한 지각이 긍정적으로 형성되며, 어린 시절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게 되고, 사회에서 제시하는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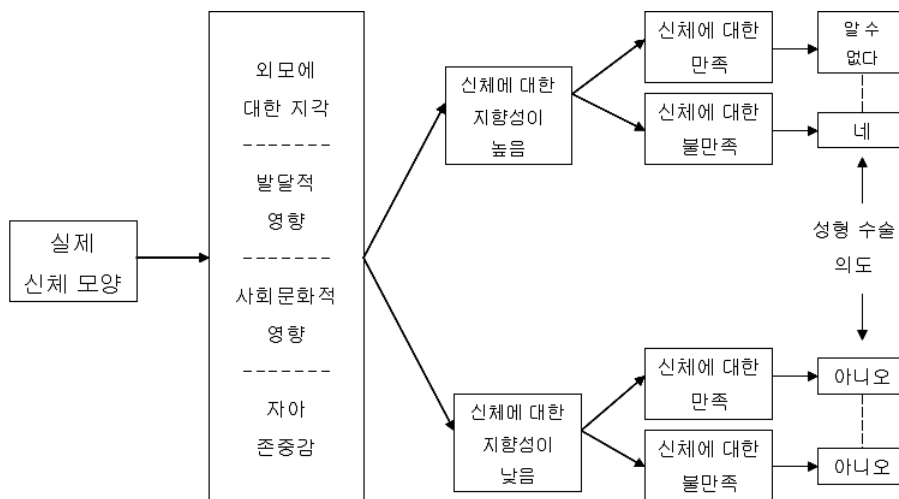


그림 1. 신체상과 성형수술 간의 관계에 대한 모델(Sarwer 등, 1998)

적인 신체상과 일치하는 정도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비교를 덜 하게 되며, 자아존중감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반면 실제 신체 모양이 매력적이지 못할 경우 자신의 외모에 대한 지각이 부정적으로 형성되며, 어린 시절부터 다른 사람들로 부터 놀림을 많이 당하게 되고, 사회에서 제시하는 이상적인 신체상을 과도하게 추구하게 되며, 자아존중감도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외모에 대한 지각, 성장 과정에서의 발달적 영향, 사회문화적 영향, 그리고 자아존중감은 신체상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았으며, 이 네 가지 변인들 중 특히 사회문화적인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신체상에 대한 태도에 관해 Sarwer 등(1998)은 주의를 집중하는 정도에 따른 지향성 요소(orientation component)와 신체에 대해 불만족 정도에 따른 평가적 요소(evaluative component)의 두 가지 요인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지향성 요소는 신체상이 자신에게 중요하지 중요하지 않은지에 따라 주의를 집중하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신체상에 대한 지향성이 높을 경우 외모가 어떠한가가 그 사람에게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자신의 신체나 외모에 대해 더 많이 감시하고 관찰하게 된다. 반대로 신체에 대한 지향성이 낮을 경우 신체상이 그 사람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요인이 되며 신체를 덜 관찰하고 감시하게 된다. 지향성 요소는 평가적 요소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평가적 요소는 지향성 요소의 특성과 상호작용하여 성형 수술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게 한다. 즉, 신체에 대한 지향성이 낮을 경우, 다시 말해서, 자신의 신체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적 요소인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 크더라도 성형 수술을 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반대로 신체에 대한 지향성이 높을 경우, 즉 신체에 대한 관심과 감시가 높을 경우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 그다지 크지 않더라도 성형 수술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Sarwer 등(1998) 모델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언급되고 있는 사회문화적인 영향과 신체상, 그리고 성형수술 의도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문화적인 영향과 신체상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여성들에게 외모에 대한 사회적인 압력이 가해지지만, 사회적 압력을 받는 모든 여성들이 신체에 대한 과도한 불만족을 가지거나 성형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니기에, 어떤 요인들이 이러한 개인차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연구되어져 왔다. 이러한 개인차를 설명해주는 변인들 중 하나가 공적 자기의식이다. 자기지각 이론에 의하면 공적 자기의식은 외모, 행동, 말과 같이 다른 사람에 의해 관찰되어지는 자아에 주의를 집중하는 경향을 의미한다(Schlenker & Weigold, 1990). 공적 자기의식은 다른 사람에게 제시되어지고 평가되어지는 자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므로, 공적 자기의식이 높은 사람은 사회적 정체성의 하나인 자신의 신체에 대해 더욱 의식하게 될 것이다. 즉 공적 자기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 요구나 평가에 민감하기 때문에(Schlenker & Weigold, 1990) 현재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이 요구하는 이상적인 외모를 추구하게 된다. 실제로 선행 연구들에서 공적 자기의식은 신체상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공적 자기의식이 높은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더 진하게 화장을 하였으며, 이런 진한 화장이 자신

들의 외모를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하고 남들과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믿었고, 외모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다(Carver & Scheier, 1981). 또한, Thornton과 Maurice(1997)는 공적 자기의식이 높은 경우 이상적인 외모에 대한 집착이 더 높다는 것을 밝혔다.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도 공적 자기의식은 신체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은정(1995)의 연구에서는 공적 자기의식은 신체에 대한 불만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정신(2002)의 연구에서는 공적 자기의식이 신체에 대한 왜곡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사회문화적 영향과 관련된 또 다른 변인 중 하나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이다. 최근 사회문화적으로 마른 몸매를 선호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을 자신 안에 얼마나 내면화하느냐에 따라 신체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tice, Schupack, Shaw 그리고 Stein(1994)의 연구에서는 단순히 미디어에 노출된 것보다 사회문화적 가치를 내면화하는 정도가 신체불만족과 더 큰 연관이 있었다. Cusumano와 Thompson(1997)은 인체매체 메시지를 접하는 정도, 사회문화적 가치를 자각하는 정도, 그리고 사회문화적 가치를 내면화하는 정도의 세 가지 변인과 신체 왜곡 정도 간의 관계를 비교한 결과 다른 두 가지 변인들보다 사회문화적 가치를 내면화하는 정도가 클수록 신체상 왜곡이 가장 많이 일어났다. 즉, 마른 몸매를 가진 사람을 보거나 사회적으로 마른 몸매를 선호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신체상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가치를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여 매력적인 외모를 자신의 외모와 비교하는 경향이 신체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문화적 영향과 신체상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진 공적 자기의식과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가 신체상 및 성형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공적 자기의식과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둘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다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문정신(2002), 그리고 Schutz과 Paxton(2002)의 연구에서 두 요인이 모두 포함되었지만, 두 요인 간의 관계는 밝혀지지 않았고, 두 요인 모두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나 신체를 비교하는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다만, Thornton과 Maurice(1999)의 연구 결과를 통해 두 요인 간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공적 자기의식이 높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신체적 매력에 대한 비교 효과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매력적인 여성의 사진을 보게 되었을 때, 자신에 대해 덜 매력적이라고 평가하였으며 신체 불안이 높아졌고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낮아졌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 대해 공적 자기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문화적 가치에 매우 민감하며 그것을 보다 빨리 내면화하여 매력적인 모델과 비교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적 자기의식이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다.

한편, 신체상에 대한 태도에 관해 Sarwer 등(1998)의 모델에서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 지향성 요소는 신체에 대한 감시로 볼 수 있다. 신체상이 중요할수록 자신의 신체에 더 많이 주의를 지향하게 되며 그로 인해 끊임없이 자신의 신체를 관찰

하고 감시하게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요소인 평가적 요소는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나 또는 이러한 불만족이 더 발전되어져서 나타나는 신체 왜곡으로 볼 수 있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신체에 대한 평가적 요소인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 성형 행동이나 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밝혔으나(윤종희, 등, 2006; 지경환, 이상익, 2001; 최윤정, 2005), 지향성 요소인 신체에 대한 감시에 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향성 요소인 신체에 대한 감시와 평가적 요소인 신체에 대한 불만족을 함께 포함시켜서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신체에 대한 불만족은 신체에 대한 만족, 신체에 대한 불만족, 신체에 대한 왜곡이라는 연속선상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Sarwer 등, 1998). 신체에 대한 불만족과 사회문화적 변인들 간의 관계를 다룬 문정신(2002)의 연구에서 공격 자의의식과 신체에 대한 불만족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데 반해 공격 자의의식과 신체에 대한 왜곡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 중 하나로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 거의 모든 여성들에게 보편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든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신체 불만족보다는 불만족의 정도가

더 높은 신체에 대한 왜곡과 다른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성형수술 행동에 더 많은 관심과 의도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의 심리적 특징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면, Sarwer 등(1998)의 모델을 근거로 사회문화적 영향과 관련된 변인인 공격 자의의식과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그리고 신체상에 대한 태도와 연관된 신체에 대한 감시와 신체에 대한 왜곡이라는 네 가지 변인과 성형 의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가설적 모형은 그림 2와 같다.

또한,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 문제로서 성형수술 여부 및 성형수술 의도 정도에 따라 구분된 집단 간에 위의 네 가지 변인에서 차이가 있을 것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성형수술을 한 집단 중 다시 성형 수술을 할 의향이 높은 집단, 성형수술을 한 집단 중 다시 성형 수술을 할 의향이 낮은 집단, 성형수술을 하지 않은 집단 간에 사회문화적 영향과 관련된 변인들과 신체상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고자 하였다. 과거에는 성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병리적인 현상 중의 하나였으나 최근에는 성형이 점차 보편화됨에 따라 성형 행동이 반드시 정신 장애의 특성들을 나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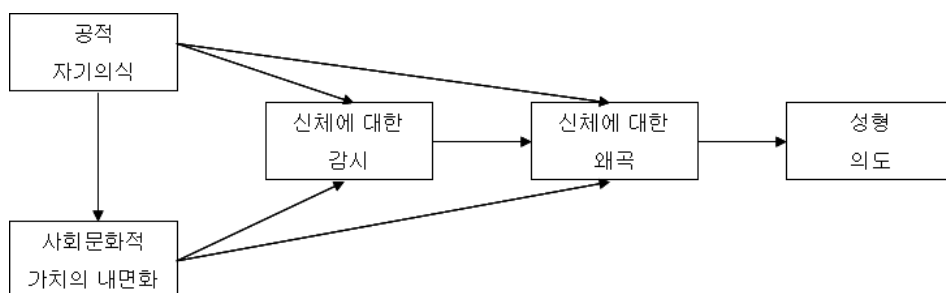


그림 2. 성형 의도와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적 모형

내는 것은 아니다(지경환 & 이상익, 2001; Sarwer 등, 1998) 하지만, 성형 수술을 하는 여성들 중에는 다양한 정신 병리적 특성이 잠재되어 있어,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여성의 경우 성형수술 후 수술 결과에 지속적으로 만족하지 못하여 성형 중독이라는 문제에까지 이르게 된다. 최근 우리나라 대중매체에서 보도된 ‘선풍기 아줌마’에 대한 뉴스는 성형중독의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SBS, 2004). 따라서 성형수술을 한 집단 중 다시 성형수술을 할 의향이 높은 집단은 성형중독의 가능성이 많은 위험집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성형수술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병리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면 성형수술을 한 집단 중에서도 성형중독의 위험이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성형수술을 한 사람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성형수술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은 집단을 성형 중독에 걸릴 위험이 높은 집단으로, 성형수술을 한 사람들 중 다시 성형수술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낮은 집단을 성형 수술 집단으로, 그리고 성형수술을 하지 않은 집단을 대조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 간에 공적 자기의식,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신체에 대한 감시, 그리고 신체에 대한 왜곡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 자기의식,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신체에 대한 감시, 신체에 대한 왜곡과 성형 의도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적 모형은 타당한가? 구체적으로는, 그림 2의 모형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a) 공적 자기의식은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와 신체에 대한 감시, 신체에 대한 왜곡

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b) 사회문화적 기준의 내면화는 신체에 대한 감시, 신체에 대한 왜곡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c) 신체에 대한 감시는 신체에 대한 왜곡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d) 신체에 대한 왜곡은 성형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둘째, 성형중독 위험 집단, 성형수술을 한 집단, 성형수술을 하지 않은 집단 간에 공적 자기의식,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신체에 대한 감시, 신체에 대한 왜곡에서 차이가 나타나는가?

## 방 법

###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서울 시내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교양 수업이나 전공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 중 질문지를 완성하도록 하였다. 총 226명의 자료 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222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령은 18세에서 30세까지 평균 21.97세 이었다. 총 222명 중 성형수술을 한 사람은 56명(25.6%), 성형수술을 하지 않은 사람은 166명(74.4%)이었으며, 눈 수술을 한 사람이 46명(20.7%)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 코 수술이 4명(1.8%), 눈과 코 수술을 같이 한 사람이 4명(1.8%), 안면 윤곽 수술이 1명(.5%), 눈 수술과 지방흡입 수술을 같이 한 사람이 1명(.5%)이었다.

### 도 구

#### 공적 자기의식

공적 자기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Fenigstein,

Scheier, 그리고 Buss (1975)의 척도를 이주일 (1988)이 변안한 자기의식 척도(Self-Consciousness Sclae)를 사용하였다.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나를 특징짓는 것이 아니다’의 1부터 ‘극히 나를 특징짓는 것이다’의 5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이다. 이 척도는 공적 자기의식, 사적 자기의식, 사회불안이라는 세 가지 하위척도를 가지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중 공적 자기의식을 측정하는 6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공적 자기의식은 사회적으로 표현된 자기의 측면에 주의를 집중하는 경향을 말한다. 공적 자기의식의 점수 범위는 6점부터 3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자기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높은 것이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남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신경을 쓴다.’, 또는 ‘나는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해 신경을 쓴다.’를 들 수 있다. 이주일(1988)에서의 공적 자기의식의 내적 합치도는 .80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83이었다.

####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Cusumano와 Thompson(1997)이 개발하였고 문정신(2002)이 변안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재화 척도(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Scale)를 사용하였다.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의 1부터 ‘매우 그렇다’ 5까지 5점 리커트 척도이다. 이 척도의 하위척도는 자각과 내면화이며, 본 연구에서는 그 중 내면화에 해당하는 9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9점부터 4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문화적 가치를 더 많이 내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나의 몸이 TV나 영화에

나오는 여자들과 같았으면 좋겠다.’, 또는 ‘나는 나의 몸매를 TV 스타들이나 영화배우들과 비교하는 경향이 있다.’를 들 수 있다. 내적 합치도가 Cusumano와 Thompson(1997)과 문정신(2002)의 연구에서는 .8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6으로 나타났다.

#### 신체에 대한 감시

신체에 대한 감시를 측정하기 위해서 McKinley와 Hyde(1996)의 대상화된 신체 의식 척도(Th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lae)의 하위 척도 중 ‘신체에 대한 감시(body surveillance)’를 변안하여 사용하였다. 변안의 방법으로는 역번안 기법을 사용하였다. 역번안 기법은 원척도와 번역된 척도 간의 동등성을 평가하는 판단적 방법 중 하나로써 번역의 질을 평가하는 데 효과적이며(Hulin, Drasgow, & Komocar, 1982), 원검사와 가장 유사한 번안된 검사를 만드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Werner & Campbell, 1970). 번안의 1차 과정으로서 영어로 기록된 질문지를 본 연구자가 한글로 번역하였다. 2차 과정으로서 한글로 번역한 질문지를 영어와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사람(bilingual)이 영어로 역번역하였다. 3차 과정으로서 상담심리 전공의 박사과정 중인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전문가가 역번역한 질문지를 다시 원래 질문지와 비교하여 원질문지와 많은 차이를 보이는 문항을 선별하였다. 4차 과정으로서 원질문지와 많은 차이를 보이는 문항에 대한 한국어 번역을 본 연구자와 2개 국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원질문지에 최대한 충실하게 수정하였다.

신체에 대한 감시는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7까지 7점 리커트 척도이다. 점



수의 범위는 8점부터 42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신체가 어떻게 보일까에 대해 관찰하고 신경을 쓰는 경향이 많은 것을 나타낸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종종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나에게 잘 어울리는지 걱정한다’, 또는, ‘나는 내 신체가 어떻게 보이는가보다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더 신경을 쓴다.’(역채점 문항)를 들 수 있다. McKinley와 Hyde(1996)의 연구에서는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79로 나타났으며, Moradi, Dirks, 그리고 Matteson(2005)의 연구에서는 내적 합치도가 .82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내적 합치도가 .75로 나타났다.

### 신체에 대한 왜곡

신체에 대한 왜곡을 측정하기 위해서 Littleton, Axon과 Cynthia(2001)가 개발하였고 문정신(2002)이 번안한 간편 신체 왜곡 질문지(The Brief Body Dysmorphic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에서 ‘언제나 그렇다’의 5까지 5점 리커트 척도이다. 점수의 범위는 20점에서 1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에 대한 왜곡이 심한 것이다. 신체 왜곡은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 너무 커서 자신의 신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변형, 왜곡하여 받아들이는 경향을 말한다. 신체 왜곡이 심한 경우에는 자신이 못생기고 매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매우 커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일그러졌다고도 인식하며, 밖에 나가는 것도 꺼리게 된다. 신체 왜곡 증상에 대한 문항의 예로는, ‘나는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싫다.’, 또는 ‘나는 나의 외모 때문에 집을 나서는 것이 거북하다.’를 들 수 있다. Littleton 등(2001)의 연구에서는 내적 합치도가 .91이었으며, 문정신(2002)의 연

구에서는 내적 합치도가 .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 성형 수술 여부 및 성형 의도

성형 수술 여부는 ‘성형 수술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네’ 또는 ‘아니오’로 대답하게 하였으며, 어느 부위를 수술하였는지 5지 선다형 중(눈, 코, 안면윤곽, 지방흡입, 가슴성형) 선택하게 하였고, 그 외의 수술 부위는 기타 란에 표시하도록 하였으나 그 외의 부위를 수술한 사람은 없었다.

성형 수술 의도는 Harrison(2003)이 개발하였고, 최윤정(2005)이 번안하여 사용한 문항들을 활용하여 성형 수술 의도를 측정하였다. ‘비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외모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앞으로 다음의 성형수술을 할 의향이 얼마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하였고, 이 질문에 대해 눈 수술, 코 수술, 안면 윤곽 수술, 지방 흡입 수술, 가슴 성형 수술 각각에 대해 수술을 할 의향의 정도에 따라 5점 척도에 표시하도록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성형 의도가 많은 것이다. 그 외의 부위에 성형 수술을 할 의향이 있는 경우 기타 란에 수술 부위를 쓰고 수술하고 싶은 정도를 표시하도록 하였는데, 기타 부위로는 피부 관련 수술(15명), 치아 교정(11명) 수술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장 많았고, 그 외에 키 늘리는 수술이나 흉터 제거 수술이 있었다. 최정윤(2005)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7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62이었다.

### 분석 방법

예비 분석으로서 모든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를 산출하였으며 변인들 간 상관분석을 실

시하였다. 첫 번째 연구문제인 성형 의도와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AMOS 5.0을 사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성형 중독 위험 집단, 성형 수술을 한 집단, 성형 수술을 하지 않은 대조 집단 간에 주요 변인들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일원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 결 과

### 예비 분석 결과

가설적 모형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분석으로서 각 척도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등 기초통계치를 구하였으며,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변인들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공적 자기의식,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신체상에 대한 태도가 성형의도에 미치는 영향

### 모형 검증

성형 의도와 공적 자기의식,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신체상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에 대한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산출된 모형의 적합도는 표 2와 같다. 1에 가까울수록 좋은 적합도로 판단되는 NFI, TLI, CFI에서 .9이상의 좋은 적합도가 나타났고, 0에 가까울수록 좋은 적합도로 판단되는 RMSEA에서도 .08의 적절한 적합도가 나타나 본 연구에서의 가설적 모형이 타당하고 적합한 모형임을 알 수 있다.

### 모형에 나타난 경로계수와 직·간접 효과

성형 의도와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산출된 가설적 모형의 경로계수는 표 3, 그림 3에 제시하였으며, 변수들 간의 직·간접 효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먼저 가설적

표 1. 기술 통계 분석 및 상관분석 결과 (N=222)

변 인	PSC	NTL	SRVLL	BD	SRG-NT	평균	표준편차
공적 자기의식(PSC)	1					22.45	4.00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NTL)	.44**	1				30.26	6.13
신체에 대한 감시(SRVLL)	.64**	.52**	1			38.05	6.60
신체에 대한 왜곡(BD)	.44**	.57**	.55**	1		52.06	12.94
성형 의도(SRG-NT)	.22**	.42**	.37**	.46**	1	5.24	4.38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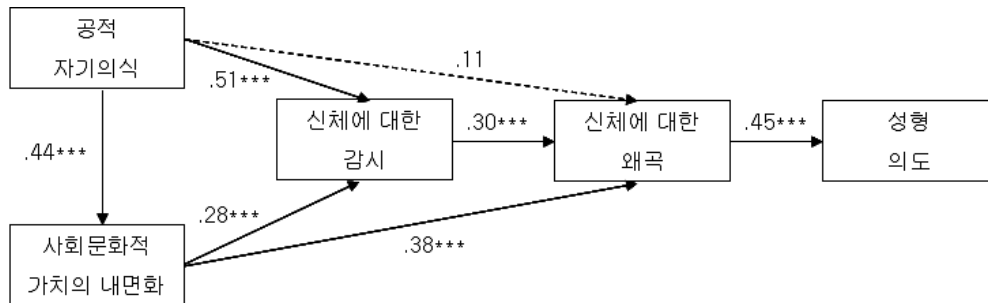
표 2. 성형 의도와 사회문화적 변인들 및 신체상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지수

	$\chi^2$	df	p	NFI	TLI	CFI	RMSEA
기본 모형	7.63	3	.05	.98	.93	.99	.08

표 3. 성형 의도와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적 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경로계수	표준오차	경로계수 임계치	표준화계수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 공적 자기의식	.67	.09	7.20***	.44
신체에 대한 감시 ←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30	.06	5.07***	.28
신체에 대한 감시 ← 공적 자기의식	.84	.09	9.32***	.51
신체에 대한 왜곡 ←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81	.13	6.26***	.38
신체에 대한 왜곡 ← 신체에 대한 감시	.71	.12	5.96***	.30
신체에 대한 왜곡 ← 공적 자기의식	.34	.22	1.56	.11
성형에 대한 의도 ← 신체에 대한 왜곡	.15	.02	6.96***	.45

\*\*\*p < .001



(\*\*\*p < .001)

그림 3 성형 의도와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적 모형의 경로계수

표 4. 성형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 간의 직·간접 효과

경로	전체 효과	직접 효과	간접효과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 공적 자기의식	.44	.44	> .00
신체에 대한 감시 ← 공적 자기의식	.64	.51	> .12
신체에 대한 감시 ←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28	.28	> .00
신체에 대한 왜곡 ← 공적 자기의식	.46	.10	< .36
신체에 대한 왜곡 ←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46	.38	> .08
신체에 대한 왜곡 ← 신체에 대한 감시	.30	.30	> .00
성형에 대한 의도 ← 공적 자기의식	.21	.00	< .21
성형에 대한 의도 ←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21	.00	< .21
성형에 대한 의도 ← 신체에 대한 감시	.13	.00	< .13
성형에 대한 의도 ← 신체에 대한 왜곡	.45	.45	> .00

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공적 자의의식과 신체에 대한 왜곡 간의 경로를 제외한 6개의 경로가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간접 효과에 대한 결과에서는, 변인들의 전체 효과가 .13부터 .45까지 모든 변인이 성형 의도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에 대한 왜곡의 효과 크기(전체효과=.45)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공적 자의의식과 신체 왜곡 간의 경로, 그리고 공적 자의의식,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신체에 대한 감시와 성형 의도 간의 경로에서는 간접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고, 그 외의 경로들에서는 모두 직접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 수술 여부와 성형수술 의향 정도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분석**

**성형수술 여부 및 성형의도에 따른 집단 구분**

성형 수술 여부 및 성형 의도에 따라 공적 자의의식,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신체에 대한 감시, 신체에 대한 왜곡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성형수술 여부 및 성형 의도에 따라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성형수술을 한 56명 중 성형하고자 하는 의도가 평균점수인 5.24보다 높은 경우 성형중독 위험 집단으로, 5.24미만일 경우 성형수술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대조 집단은 성형수술을 하지 않은 166명 중 무선으로 28명을 선정하였다. 이 중 성형의도에 누락된 문항이 있는 경우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각 집단별 성형 의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5와 같다.

**일원다변량분석 결과**

성형중독위험 집단, 성형수술 집단, 대조 집

표 5. 집단별 성형의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성형 의도 정도	평균	표준편차	N
성형중독위험 집단	10.68	3.29	22
성형수술 집단	2.62	2.11	26
대조 집단	5.04	4.18	28

표 6. 주요 변인들의 일원다변량분석

변량원	종속변인	Wilks' Lambda	자승합	자유도	평균제곱	F	Scheffe
	PSC		96.15	2	48.08	3.00	
성형 의도	NTL	.42	458.30	2	229.15	6.73**	a > b, c
	SRVLL		350.30	2	175.15	4.25*	a > b, c
	BD		3916.41	2	1958.21	11.78***	a > b, c

\* $p < .05$  \*\* $p < .01$  \*\*\* $p < .001$

주. PSC=공적 자의의식, NTL=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SRVLL=신체에 대한 감시, BD=신체에 대한 왜곡. a=성형중독위험 집단, b=성형수술 집단, c=대조 집단.

표 7. 성형의도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영역	성형수술 여부 및 의도	평균	표준편차	N
공적 자기의식	성형중독위험 집단	24.55	4.17	22
	성형수술 집단	21.85	3.55	26
	대조 집단	22.36	4.25	28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성형중독위험 집단	34.77	5.41	22
	성형수술 집단	29.00	6.15	26
	대조 집단	29.79	5.86	28
신체에 대한 감시	성형중독위험 집단	41.95	6.12	22
	성형수술 집단	37.15	6.43	26
	대조 집단	37.29	6.64	28
신체에 대한 왜곡	성형중독위험 집단	63.23	15.61	22
	성형수술 집단	49.50	9.25	26
	대조 집단	46.07	13.44	28

단 간에 공적 자기의식,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신체에 대한 감시, 신체에 대한 왜곡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6, 표 7에 제시하였다.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F_{(2,73)}=6.73, p<.01$ ), 신체에 대한 감시( $F_{(2,73)}=4.25, p<.05$ ), 신체에 대한 왜곡( $F_{(2,73)}=11.78, p<.001$ )에서는 성형중독위험 집단이 성형수술집단이나 대조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공적 자기의식에서만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논 의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 문제는 Sarwer 등 (1998)의 모델을 근거로 사회문화적 영향과 관련된 변인들과 신체상에 대한 태도와 연관된

변인들이 성형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었다. 사회문화적 영향과 관련된 변인들에는 공적 자기의식과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가 포함되었고, 신체상에 대한 태도와 연관된 변인들로는 신체에 대한 감시와 신체에 대한 왜곡이 포함되었다. 이 네 가지 변인들이 성형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본 연구에서 가정하였던 가설적 모형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적 자기의식과 신체에 대한 왜곡 간 경로를 제외한 모든 변인들 간의 경로는 유의미하였다. 또한, 경로들의 직접, 간접 효과를 살펴본 결과, 모든 변인들이 성형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공적 자기의식이 신체에 대한 감시와 신체에 대한 왜곡에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준다는 결과는 공적 자기의식이 신체에 대한 불만족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나 신체

적 매력의 비교 효과에 더 민감하게 만든다는 선행 연구들과 일치되는 결과이다(문정신, 2002; 손은정, 1995; Carver & Scheier, 1981; Thornton & Maurice, 1997; Thornton & Maurice, 1999). 또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가 신체에 대한 감시 및 신체에 대한 왜곡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역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와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나 왜곡 간의 관계에 대한 이전 연구결과들을 지지하고 있다(Cusumano & Thompson, 1997; Stice, Schupack, Shaw & Stein, 1994). 그러나 두 변인들은 신체에 대한 왜곡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공적 자기의식은 직접 효과보다는 간접 효과가 더 큰 데 반해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는 직접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공적 자기의식이 높은 사람은 사회문화적 가치를 더 많이 내면화하며 자신의 신체를 더 많이 관찰함으로써 신체에 대한 왜곡이 많아지게 되는 반면, 사회문화적 가치를 많이 내면화하는 사람은 신체에 대한 감시를 많이 하지 않더라도 신체에 대한 왜곡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적 자기의식이 개인의 성향적 특징이기 때문에 다른 매개 변인들에 의해 신체에 대한 왜곡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면,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는 신체에 대한 왜곡과 보다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나 신체에 대한 감시가 신체에 대한 왜곡과 성형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문화적 영향과 신체상에 대한 태도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신체상에 대한 태도의 두 가지 요소(지향성 요소와 평가적 요소)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 두 요소

들이 성형 의도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Sarwer 등(1998)이 제안한 사회문화적 영향, 신체상에 대한 태도, 그리고 성형 의도 간의 관계에 대한 모델이 타당한 것임이 실제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경로 분석 결과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모든 변인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성형 의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중에서도 성형의도에 가장 직접적이면서 큰 영향을 주는 변인이 신체에 대한 왜곡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Sarwer 등(1998)이 이야기하는 신체상에 대한 태도의 두 가지 요소 중 신체에 대한 감시라는 지향성 요소보다는 신체에 대한 왜곡이라는 평가적 요소가 성형 의도와 직접적이면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들이 성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신체 이미지를 얼마나 중시하며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느냐 보다는 자신의 신체에 대해 어느 정도 불만족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연구문제로서 성형 수술 여부 및 성형 의도에 따른 집단 간에 공적 자기의식,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신체에 대한 감시, 그리고 신체에 대한 왜곡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성형 수술 여부 및 성형 의도에 따라 성형중독위험 집단, 성형수술 집단, 대조 집단으로 구분하고 세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신체에 대한 감시, 그리고 신체에 대한 왜곡에서 성형중독위험 집단이 성형수술 집단이나 대조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경환과 이상익(2001)의 연구에서 성형수술을

받았던 집단이 성형 수술을 받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신체적 문제로 심리적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특히 이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성형수술 집단과 대조 집단 사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외모지상주의의 문화에서 이제 성형 수술을 하는 것은 매우 보편화되어버렸기 때문에 성형 수술을 한 번 정도 하는 사람에게서는 병리적 특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그에 반해 성형 수술을 받은 후 계속 만족하지 못하고 재수술을 원하거나 신체의 한 부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위에 대해 전면적으로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형 수술을 하지 않았거나 한 번 정도 한 사람들과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대조집단이나 성형수술 집단보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더 많이 내면화하며, 신체에 대해 더 많이 관찰하고 감시하고, 자신의 신체를 왜곡하는 특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경향이 커질수록 심각하게는 성형중독이라는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또한 세 집단 간 차이에 대해 비교한 결과 신체에 대한 왜곡에서 집단 간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경로 분석에서 신체에 대한 왜곡이 성형 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지지해 주는 결과이며, 신체에 대한 왜곡이 성형수술 행동이나 의도에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결과이다. 반면, 공적 자기의식에서는 세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공적 자기의식이 신체에 대한 왜곡이나 성형 의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경로 분석 결과의 맥락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즉, 공적 자기

의식이 성형 의도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기보다 직접적인 영향이나 차이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여겨진다.

본 연구는 첫 번째로 Sawyer 등(1998)의 모델을 바탕으로 사회문화적 영향과 관련된 변인들이 신체상에 태도에 영향을 주고 신체상에 대한 태도가 다시 성형 의도에 영향을 주는 과정을 밝힘으로써 보다 체계적으로 관련 변인들과 성형 의도 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이전 연구들에서는 평가적 요소인 신체에 대한 불만족만을 성형 의도와 연관시켜 연구해 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평가적 요소에 해당하는 신체에 대한 왜곡뿐만 아니라 지향성 요소에 해당하는 신체에 대한 감시 역시 성형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신체상의 두 가지 요소 중 특히 평가적 요소인 신체에 대한 왜곡이 성형 여부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 역시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형중독 위험 집단과 성형수술 집단 및 대조 집단 간의 차이를 밝힘으로써 성형수술을 했다는 것 자체가 병리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성형 수술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할 경우, 성형수술을 한 번 정도 한 사람과 성형중독 위험 집단에 속하는 사람을 구별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성형중독위험에 속하는 사람들의 특성에 대한 연구들이 추후에 더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Sawyer 등(1998)의 모델 중 사

회문화적 영향과 관련된 변인들 및 신체상에 대한 태도와 성형 의도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Sarwer 등 (1998)의 모델에 포함된 발달적 영향, 자신의 외모에 대한 지각, 자아존중감과 같은 그 외의 변인들도 포함시켜서 연구의 범위를 확대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서울 지역 여대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다른 여성들에게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른 지역의 직장 여성이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연구를 실시해 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형 수술을 한 사람들 중 성형 의도 정도에 따라 성형중독위험 집단과 성형수술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를 실시하였으나, 성형 의도가 실제로 재수술을 하거나 성형 수술을 계속 반복하는 행동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실제로 재수술을 반복했거나 여러 부위에 대해 성형수술을 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다시 한 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동아일보. 10대 소녀 60% “성형수술 할래요.”  
2006년 10월 9일자.  
연합뉴스. 직장인 78.6% “성형수술 생각해 본  
적 있어.” 2006년 11월 15일자.  
SBS (2004).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322회.  
문정신 (2002). 공적 자기의식 및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와 신체상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손은정(1995). 신경성 대식증 증상 수준에 따른  
신체상과 자기의식의 특성. 이화여자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연합뉴스. 2006년 11월 15일자.  
윤종희, 성수광, 진기남 (2006). 미디어 노출이  
성형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산업  
학회지, 8, 177-182.  
이주일 (1988). 이분척도와 Likert형 7점 척도의  
신뢰도, 타당도, 반응양식의 비교: 자기검  
색척도와 자기의식척도를 대상으로. 서울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현옥, 구양숙 (2006). 여성의 외모관리 행동  
의 동기연구: 성형수술, 비만체형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의류산업학회지,  
8, 113-122.  
지경환, 이상익 (2001). 미용성형수술 환자의  
심리적 특성과 미용수술이 이에 미치는  
영향. 신경정신의학, 40, 559-568.  
차영란, 김기범. (2006). 여성의 화장에 대한  
태도와 성형 의도에 대한 자기존중감과  
신체존중감의 역할 분석. 한국심리학회  
논문집.  
최백화 (2002).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고등학생들  
의 태도 및 행동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윤정 (2005). 미디어에 의한 여성들의 신체불  
만족현상에 관한 연구: TV와 잡지 소비  
로 인한 신체불만족 현상과 다이어트, 성  
형수술에 대한 동의 관계 분석을 중심으  
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오수, 유희정, 김창윤, 이철, 민병근, 박인호  
(1990). 한국인의 식이장애의 역학 및 성  
격 특성. 정신의학, 15, 270-287.  
Carver, C. S., & Scheier, M. F. (1981). *Attention  
and self-regulation: A control theory approach to  
human behavior*. New York: Springer-Verlag.  
Cusumano, D. L., & Thompson, J. K. (1997).



- Body image and shape ideals in magazines: Exposure, awareness, and internalization. *Sex Roles*, 37, 701-721.
- Fenigstein, A., Scheier, M. F., & Buss, A. H. (1975).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Assessment and theor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3, 522-527.
- Garner, D. M., Olmsted, M. P., Bohr, Y., & Garfinkel, P. E. (1982). The eating attitudes test: Psychometric features and clinic correlates. *Psychological Medicine* 12, 871-878.
- Harrison, K. S. (2003). Television viewers' ideal body proportions: The case of the curvaceously thin woman. *Sex Roles*, 48, 255-264.
- Hulin, C. L., Drasgow, F., & Komocar, J. (1982). Applications of item response theory to analysis of scale transla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7, 818-825.
- Littleton, H. L., Axon, D., & Cynthia, L. S. (2001). *Development of a self-report measure of body dysmorphic symptom: The brief body dysmorphic questionnaire*. Paper presented to the meeting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San Francisco, CA.
- McKinley, N. M., & Hyde, J. S. (1996). Th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0, 181-215.
- Sarwer, D. B., Wadden, T. A., Pertschuk, M. J., & Whitaker, L. A. (1998). The psychology of cosmetic surgery: A review and reconceptualizat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18, 1-22.
- Schlenker, B. R., & Weigold, M. F. (1990). Self-consciousness and self-presentation: Being autonomous versus appearing autonomo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820-828.
- Schutz, H. K., & Paxton, S. J. (2002). Investigation of body comparison among adolescent girl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2, 1906-1927.
- Snow, J. T., & Harris, M. B. (1985). Maintenance of weight loss: Demographic, behavioral and attitudinal correlates. *Journal of Obesity and Weight Regulation*, 4, 234-255.
- Stice, E., Schupak, N. E., Shaw, E. H., & Stein, R. I. (1994). Relation of media exposure to eating disorder symptomatology: Examination of mediating mechanism.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3, 836-840.
- Swim, J. K., Cohen, L. L., & Hyers, L. L. (1998). Experiencing everyday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In J. K. Swim & C. Stangor (Eds.), *Prejudice: The target's perspective* (pp.37-60).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Swim, J. K., Hyers, L. L., Cohen, L. L., & Ferguson, M. J. (2001). Everyday sexism: Evidence for its incidence, nature, and psychological impact from three daily studies. *Journal of Social Issues*, 57, 31-53.
- Thornton, B., & Maurice, J. (1997). Physique contrast effect: Adverse impact of idealized body images for women. *Sex Roles*, 37, 433-439.
- Thornton, B., & Maurice, J. (1999). Physical contrast effect and the moderating influence of self-consciousness. *Sex Roles*, 40, 379-393.
- Werner, O., & Campbell, D. (1970). Translating,

working through interpreters, and the problem of decentering. In R. Naroll and R. Cohen (Eds.), *A handbook of methods in cultural anthropology*. New York: American Museum of National History.

Wolf, N. (1991). *The beauty myth: How images of beauty are used against women*. New York: Anchor Brooks.

1 차원고접수 : 2007. 2. 10.

심사통과접수 : 2007. 3. 22.

최종원고접수 : 2007. 3. 26.

## **The influence of public self-consciousness, the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value and the attitude of body image on the intention of plastic surgery**

**Eun Jung Son**

Ewha Womans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public self-consciousness,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value, body surveillance, and body distortion on the intention of plastic surgery based on Sarwer et al. (1998)'s the model. Participants were recruited from the class in the University in Seoul, and 222 women responded the questionnaires. As a result of path analysis, (a) 6 paths except one path from public self-consciousness to body distortion were significant, (b) all four variables affect the intention of plastic surgery directly or indirectly. (c) and body distortion was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of these.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differences in four variables among (a) risk group for plastic surgery, those who took plastic surgery and the intention of plastic surgery were high, (b) normal group for plastic surgery, those who took plastic surgery and the intention of plastic surgery were low, and (c) contrast group, those who didn't take plastic surgery. The result showed that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these variables between the risk group and the normal group for plastic surgery,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body surveillance, body distortion, and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value between the risk group and the normal group or between the risk group and the contrast group. In body distortion, there were the highest differences between groups. Theses results indicated that body distortion is the most significant variable among these four variables, and it is likely that the people who took plastic surgery is rather dissimilar than similar group.

*Key words* : *public self-consciousness,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value, body surveillance, body distortion, intention of plastic surgery*